

협회 새로운 10년을 위해



정축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정보통신 가족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한 가운데 새시대를 향한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던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는 CDMA 이동전화 서비스로 디지털 통신 시대를 처음으로 연데 이어서 6월에는 7개분야 27개 신규사업자 선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국내사업 완전자유화 및 대외개방 준비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통신위성인 무궁화 2호의 시험방송 시작으로 방송분야의 신기원을 이룩하였고, 정부의 “9.3 경제활성화대책”과 관련 “정보통신산업발전종합대책”이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전략과제로 발표됨으로써 우리 정보통신업계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연간 이동전화 가입자수가 300만명을 돌파하고, 무선호출 가입자는 누계로 1,200만명이 넘어서는 경이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21세기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 경제력의 선진국화와 더불어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는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보통신인들이 담당해야할 몫이 지대합니다.

올해에도 정보통신산업계에는 다양한 일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통신사업의 전면적인 경쟁체제 구축으로 전국규모의 시내·시외 전화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되며, 초고속망 사업자 승인이 추진됩니다. 또 위성휴대통신(GMPCS) 사업이 허가되고, 시장개방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WTO협상이 마무리되는 등 굵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보화사회의 진전과 경제의 그로별화에 따른 변혁은 점진적으로 가속되고 있습니다. 변혁의 파장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할 대응 프로그램을 신중히 만들어 거치른 파고를 헤쳐 나가야하는 올 한 해의 의미는 그 어느때 보다는 중요합니다.

마침 금년은 우리 협회가 창립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나름대로의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87년 4월 출범의 닳을 올린 이후 어느덧 이같은 연륜이 쌓였습니다. 협회 자체적으로는 과거의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미래의 또 다른 10년을 내다보며 주위환경에 맞추어 발전상을 구상하고 그의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협회가 창설될 무렵은 정보통신산업이 여러모로 초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규모가 왜소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일깨워야 하는 상황으로서 이를 위해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와 네트워크의 보급 확장, 정보기기의 사용자 확대를 위한 계획이 정부주도로 수립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우리 협회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간 회원사의 정보통신사업 활성화와 정부의 정보화 정책수립 지원등을 통한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고자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습니다. 업계와 정부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면서 필요할 때는 선도자적 리더십을

날로 새로워지겠습니다

발휘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문도 있었고, 반성해야 할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협회의 지난 10년은 정보통신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움트고 또 그것이 고도성장을 이룩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87년의 정보통신산업의 생산규모는 총6조2,200억원, 수요규모는 5조8,200억원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협회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통해 발간한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에는 '95년의 생산이 약 79조4,000억원, 내수는 약 43조5,500억원으로서 8년 동안에는 연평균으로 생산이 160%, 수요가 94%의 신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고속성장의 궤도를 달려왔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EDI를 중심으로 한 부가통신사업의 초기단계로서 정보통신 네트워크부문에 대한 개념마저 어렵뒀던 것이 이제 EC, CALS, 인터넷이 활성화되는 네트워크의 시대로 접어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진보와 발전의 또 다른 증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의 그로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변화하고 예측을 불허하는 가운데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산업을 국가 경영의 기본틀로서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에 까지 이르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주변환경은 우리 협회에게 더 많은 임무와 사명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협회는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협회는 올해 사업의 역점을 다음과 같이 두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환경정비에 협력하고, 사업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방안을 모색하고, 애로기술의 공동개발 및 신기술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조사통계를 강화하여 정부정책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협회가 해외교류 협력 창구로서의 위상확보를 위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시각과 함께 현실을 간파하여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기능도 갖추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빕니다.

1997년 정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